

‘책벌레’를 꼬드기는 달콤한 유혹

기사 스크랩 · 독서일기 · 서평집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인 메타북

책을 위한 책이 있다. 비평에 대한 비평을 메타비평이라 이름하는 말법을 따르면 ‘메타북’쯤 되는 책이다. 책이라곤 만화나 무협지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활자중독증’에 걸린 책벌레에게는 더없는 먹이감이다. 때문에 메타북은 그 사회의 독서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메타북의 존재 여부를 놓고 보면, 우리 출판은 세계 7대 강국에 속한다는 자부심이 무색해진다. 출판인들의 자화자찬이나 속보이는 독서지도서가 메타북의 구실을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책을 이야기하는 책이 속속 출간되고 있는 점은 반가운 현상이다. 이런 책의 필자는 기자와 문인으로 크게 나뉜다. 책의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한번 사용된 것이다.

출판 저널리즘의 전범 보이는 책들

지금은 각 신문들이 앞을 다투어 출판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으나, 출판기사가 늘어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증면이 신문사 자술에 맡겨지고 나서야 출판색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80년대 후반 일주일에 한 면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8면을 내는 곳도 있다.

세명의 기사가 쓴 세권의 기사모음은 출판 저널리즘의 형성과정을 잘 보여준다. 김훈 기자의 《내가 읽은 책과 세상》(푸른숲, 1989)은 메타북의 귀중한 출발점이다. 제목이 내가 읽은 책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이 덧붙여진 아쉬움은 있지만, 이 책은 한국일보 문화부에서 문학을 담당했던 기자의 기사 스크랩이다. 따라서 시집이나 소설책을 언급할 때도 출판에 대한 고려보다는 문학에 대한 안목이 앞선다. 책 후반부에는 우리 이웃의 세상살이가 들어가 있어 메타북의 본령에는 미치지 못한다.

최근 선보인 고종석 기자의 《책읽기·책일기》(문학동네)에서 출판과 문학은 ‘동거’한다. 김훈의 작업에서 한단계 발전했지만, 출판이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학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아니, 문학과 출판이 긴장을 유지하며 임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시대의 비평가들’ 시리즈와 ‘책의 산실’ 시리즈는 문학과 출판에 양다리걸친 기자



다양한 형태의 '책 속의 책 이야기'가 책벌레들을 유혹하고 있다.

책을 위한 책들이 '책벌레'들에게 더없는 먹이감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늘어난 출판지면 덕분에 형성되기 시작한 출판저널리즘은 곧 '메타북'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형태의 '책 속의 책 이야기' 들은 곧 우리 사회의 독서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의 곤경을 대변하기도 한다. 결과는 문학의 판정승. 문학에 대한 시야는 흰티트여 있는데 비해 출판을 보는 눈은 제한적인 탓이다. 그래도 일찍이 '책의 산실'을 찾아나선 선구적인 자세는 단연 독보적이다.

한겨레신문 문화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고종석 기자의 글이 책으로 묶여진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시기상 뒤진 손수호 기자(국민일보)의 기사모음은 지난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손수호씨의 《책을 만나러 가는 길》(열화당)은 출판 저널리즘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신문지면에서 출판이 더 이상 문학의 곁다리가 아니고 어엿한 독립지면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두툼한 책이 모두 출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화제작의 뒤안길'에서는 《일본은 없다》가 본래 결혼답례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책동네 이야기'에서는 출판사 이름의 작명 배경과 출판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사육징크스의 실체를 접할 수 있다.

'책벌의 경작자들'과 '책과 사람들'은 이 책을 출판 저널리즘의 전범으로 만드는 확실한 방점. 고종석 기자의 '책의 산실'이 출판사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라면, '책벌의 경작자들'은 미시적 접근에 해당한다. 일간신문에서 출판 저널리즘의 영역을 확고히 한 손수호 기자가 문학이나 영화로 '종목'을 바꾼 것은 출판계로서는 커다란 손실이다. 그리고, 이 책의 옥에 티 하나.

"여기에는 속을 못 보게 비닐로 덮는 것이 요즘의 시속인데, 내용 전달이라는 본질보다는 공짜로 눈요기도 안된다는 완고함, 더불어 독자에게 절도의 혐의를 두는 것 같아 찝찝하게 이를 데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요즘의 시속'을 따라 '완고함'을 발휘하기도 했다. 물론 곧바로 거추장스런 비닐 포장을 벗기는 했지만 말이다.

보석처럼 빛나는 진귀한 책이야기들

《책 속에 숨어있는 99가지 책이야기》(한길사)는 '책의 박물관'이다. 《출판저널》의 인기연재칼럼 '재미있는 책이야기'를 엮은 것으로 책에 관한 진귀한 이야기들이 보석처럼 빛난다. 이 책의 올바른 독법은 언급된

책을 찾아서 읽는 일. 하지만 길은 험난하다. 라즈니쉬의 '빠딱함'의 실체를 직접 보고 싶어 대형서점의 검색기를 두드리면, 《내가 사랑한 책들》은 절판되었음을 알려준다. 로베르 에스카르피의 《문학의 사회학》(을유문고 247번)도 빼곡히 꽂혀 있는 을유문고의 더미 속에서 쏙 빠져 있다.

메타북은 독서일기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의 《행복한 책읽기》(문학과지성사, 1992)는 이 방면의 모범. 방대한 독서량은 다른 비평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시집과 소설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판별하는 감식안도 여간 높지 않았다.

소설가 《장정일의 독서일기》는 내용과 형식 모두 김현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출판사를 바꾸며 벌써 세권째 나왔다. 작가의 엄청난 독서량은 알아줘야겠으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이유가 '어떤 필요'에서인지 모르겠다. 첫째권에서 유지된 격조도 후속편으로 이어지면서 자기변명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사태와 관련한 심경고백이 그 단적인 예. 독자는 '독서' 일기를 읽고자 하는 것이지 독서 '일기'를 읽으려는 것이 아니다.

서평의 외곽지대에 있던 어린이책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일고 있다. 최윤정씨의 《책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문학과지성사)와 《어린이책의 역사》(시공사)는 메타북 형태를 취하며 어린이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문학평론가 최윤정씨가 쓴 어린이책에 관한 서평들은 책을 읽으라고 다그치기만하는 책 밖에 있는 어른들에게 따끔한 질책으로 들린다.

두권으로 번역된 《어린이책의 역사》는 영국의 《가디언 위클리》에서 15년 동안 어린이책 서평기자로 일한 바 있는 존 로 타운젠드가 영어권 어린이문학의 역사를 정리한 본격 서평집이다. 어린이문학의 출발을 설화나 민담으로 보고 그 연원을 추적한다. 1840년부터 1백년간 출판된 책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을 정리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13,000권에 이르는 본문에서 다룬 엄청난 책의 분량이 아니라, 참고문헌에 나열된 수백권에 달하는 어린이책 메타북이다.

— 최성일 기자